

이름의 의미

토기장이교회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진흙으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토기장이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빛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쓰임을 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 64:8)

비전

토기장이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는 예수공동체, 성령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완벽한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죄인인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위장된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만일 완벽한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죄인인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위장된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大蓋)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할까?

117문은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11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서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것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이 무엇이나고 묻고 실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참된 종교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거짓된 종교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망사항을 구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의 자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 하지도 않는데 나열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손자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녀는 미스코리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늘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는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우리에게 결여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문구는 “영혼과 몸”입니다.
요리문답은 기도에 있어서 영혼과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교회는 지나치게
몸과 관련된 것만을 기도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많고,
좀 의식이 있는 교회는 반대로
영혼과 관련된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극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몸에 필요한 대표적인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식사 시간 전에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상) by 이성호]

기도할 때 수신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요리문답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기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든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를 듣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가 혼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 결과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로 인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으로 배우는 **기도** 祈禱, prayer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시 119:164).
영(靈)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좇아 살기를 원하신다(빌 4:6; 살전 5:18; 요일 1:9).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한편, 루터(Luther)는 기도에 대하여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재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성을 정의해 보면,

- ①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곧, 생명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 행위다
(시 63:1-8; 73:25-26; 눅 6:12; 요일 1:3; 계 3:20).
- ②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다(눅 2:28-32).
- ③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다(시 103편).
- ④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다(시 51편).
- ⑤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다(롬 9:1-2; 10:1).
- ⑥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복종 행위다(마 26:39).라이프성경사전

7:1-8:28 기드온의 승리와 패배

본문의 위치.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열두 사사(여섯 명의 대사사와 여섯 명의 소사사), 반(反)사사(anti-judge)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며,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차례다. 우리는 6장에서 기드온이 부름받아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오(7:1-25)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8:1-28).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숭배가 반복적이고 하향적으로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먼 자들이 되어 가고 있다.

큰 그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하 신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된다.

II. 사사들(3:7-16:31)

B. 제2군: 세 명의 큰 사사들(6:1-16:31)

1. 기드온(6:1-8:35, 큰 사사)

a. 기드온이 부름 받다(6:1-40)

- (1) 미디안의 억압(6:1-6)
- (2) 주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다(6:7-10)
- (3) 기드온이 부름 받다(6:11-24)
- (4)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수다(6:25-32)
- (5) 기드온의 양털(6:33-40)

b. 미디안이 패배하다(7:1-25)

- (1) 삼백 명을 골라내다(7:1-8)
- (2) 주님이 꿈으로 기드온을 격려하시다(7:9-14)
- (3) 미디안의 전투(7:15-25)

c. 이스라엘이 타락하다(8:1-35)

- (1) 에브라임의 불평(8:1-3)
- (2) 숙곳과 브누엘의 배척(8:4-9)
- (3) 세바와 살문나의 생포(8:10-12)
- (4) 숙곳과 브누엘의 징벌(8:13-17)
- (5)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8:18-21)
- (6)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8:22-23)
- (7) 기드온의 에봇과 땅의 안식(8:24-28)
- (8) 에필로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되돌아가다(8:29-35)

삿7:15-25.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미디안 진영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한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전쟁을 미루던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을 공격한다.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들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기”라면 향아리, 횃불, 나팔뿐이었다(16절). 기드온이 그 “무기”들을 사용해 나름 유용한 작전을 수행했지만, 미디안이 가장 힘들어할 시점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하게 된 것부터 미디안 군사들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서로 같은 편을 공격하게 만든 것까지, 이스라엘 승리의 궁극적 원천은 여호와였다. 내레이터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22절).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300명까지 줄인 것도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하는 동안 사람의 영광이 미묘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끼어든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외침이었다(20절). 기드온의 이름을 여호와와 함께 외치며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연중에 기드온이 전쟁에 끼친 기여와 헌신을 인식 하게 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이 외침과 그로 인한 오해(8:22; 참조. 9:17)는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치명적인 실패가 항상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잘 인식할 수 없는 인간적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마침내!) 이미 수주 전에 그랬어야 했을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그의 군대 앞에서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이 적의 꿈보다 기드온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하고 나름대로 옳은 불평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친절을 베푸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은혜와 인내로 대하신다.^{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격려한 후, 기드온은 창과 칼 대신 나팔과 향아리, 그리고 횃불을 사용하는 작전을 세운다(16, 18절). 이 도구들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의 작전에서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라는, 기드온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는 명령(17절)으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기드온의 행동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것은 18절에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군호(“여호와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와 더불어 미디안과의 전쟁 성격을 왜곡한다. 기드온은 그와 함께했던 300명에게 미디안 진으로 돌격할 때, “여호와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명한다. 이 명령은 그리 잘못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문과 유사한 표현(“기드온의 칼”을 미디안 사람들이 맨 처음 썼다는 사실은 이 표현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여호와와의 이름과 함께 기드온이 언급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가나안(에글론)에서 발견된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라는 비문에서 엿볼 수 있는, 신을 위하라는 명령과 왕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는 관습은 기드온이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전투 계획은 “이경 초에” 수행되는데, 이는 자정에 시작되어 네 시간 지속되는 한밤중이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계획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소규모 군인들이 횃불과 나팔(숫양의 뿔)과 함성으로 무장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투 계획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함락을 상기시킨다. 당시에는 일곱 째 날에 전사들과 일곱 제사장들이 그 성읍 둘레를 일곱 번 행진했고, 큰 소리를 질렀으며, 나팔을 불었다(수 6:20-21). 바로 그 순간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은 파멸에 바쳐졌다. 여리고에서의 엄청난 사건과 이곳에서 기드온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참된 근원이 용사이신 여호와와이심을 분명히 부각시켜준다.^{ESV}

이경 (二更, second watch)

히브리인의 시간 단위로 밤 9시에서 자정까지의 시간(눅 12:38). 히브리인들은 밤을 초저녁(해 질 때-밤 10시), **이경(밤 10시-새벽 2시)**, 삼경(새벽 2시-해 뜰 때)으로 나눴다. 신약 시대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밤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 하는 시간 구분법을 사용했다. 즉, 저물 때(해 질 때-오후 10시), 밤중(오후 10시-오전 1시), 닭울 때(오전 1시-오전 4시), 새벽(오전 4시-해 뜰 때)으로 구분했다.^{라이프 성경사전}

²¹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²²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실제 전투에 대한 묘사도 사용된 전술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미디안 군대가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다. 미디안의 반응에 대한 설명은 22절에 나온다. 21절과 22절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와 원인의 관계다. 22절에서 저자는 20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21절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의 도망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달리 말하면,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그 진영 둘레에 서 있는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진영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 주님이 기드온의 한밤중 기습 공격을 이용하여 적을 큰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동쪽으로 도망하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확실히 끝낼 것이다.^{ESV}

스레라의 벤 싯다,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 남은 미디안 군사들은 “스레라의 벤 싯다”와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까지 도망갔다(22b절).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 강을 건너왔고(6:33), 기드온이 조금 후에 에브라임에게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보아(7:24), 전쟁이 벌어졌던 이스라엘 평지(7:33)와 요단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인 것 같다.^{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²³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은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미디안 군대가 도망하자 기드온이 7:2-7에서 이전에 해산한 사람들 (참고, 6:35)을 불러낸다. 다함께 그들은 진영에서 일어난 학살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추격할 것이다.^{ESV}

²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²⁵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엍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엍은 **스엍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엍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6:35에 소집된 지파들(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더하여, 기드온이 이제는 에브라임에게, 미디안 군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요단강에 있는 나무들을 점령하도록 요청한다.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죽인 장소를 “오렙 바위”와 “스렙 포도주 틀”이라고 불러서 그 사건을 기념한다. 포도주 틀에 대한 언급은 이 내러티브의 시초, 즉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대목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주님이 도와달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결과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다.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출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건들을 상기하며 과거에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장차 때가 차면 이뤄질 궁극적 구출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시편 83:11-12는 이렇게 선언한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과 같이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이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새번역) 이 저주 기도의 근거는 이 시편의 끝에 나온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시 83:18, 새번역).^{ESV}

긍정적? 부정적! 기드온이 추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집하여 적들을 쫓게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즉,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적들을 뒤쫓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 불러들인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으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이들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가? 기드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Boda).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본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다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Klein, Olson).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해서 서로 죽이게 한 이후(22절)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추시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듯하다(cf. Olson). 23절 이후의 나머지 이야기에는 온통 기드온만 보일 뿐 하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암시하는 듯하다.^{Expository + Commentary}

| 아래의 글을 읽고 나누어보세요.

18 ...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 (삿 7:18b)

우리는 군사 지도자에 의해 제안된 그런 전투 구호를 어디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여호와를 위하여라, 모세를 위하여라”나,

“여호와를 위하여라, 여호수아를 위하여라”, “여호와를 위하여라, 다윗을 위하여라” 등과 같은 전투 구호는 없었다.

기드온의 전투 구호는 부적절한 동기가 전혀 없는 순수한 것으로 쉽게 간과될 수도 있었지만,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구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삿 8장 참조).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부적절한 동기는 없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KaMU

Stephen Hah

D A/C# Bm Bm/A G E7/G# A7sus4 A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5 D A/C# Bm Bm/A G A D G/A A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9 D A/C# Bm Bm7/A G E7/G# A7sus4 A

하 나 님 - - 나 의 마음 - 만져 주 소서 -
하 나 님 - - 나 의 기도 - 들어 주 소서

13 D A/C# Bm Bm7/A G A D

하 나 님 - - 나 의 영혼 새롭게 하 소서
하 나 님 - - 주 의 길로 인도 - 하 소서

| 질문 |

59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 가셨습니까?(10:38)

60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까?(10:38)

61 그에게 어떤 동생이 있었습니까?(10:39)

| 답 |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한 마을.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이었다(요 12:1~3).^{ESV}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 질문 |

62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10:39)

| 답 |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제자의 적절한 자리(참조, 눅 8:35; 행 22:3).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에 속한 어떤 이들과는 달리 여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것을 권하셨다.^{ESV}

사람들은 보통 의자에 앉거나, 연회 때는 소파에 기대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의 발 아래 앉았다. 진지한 제자들은 선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선생이라는 역할은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2세기의 주목할 만한 한 예외는 어떤 박학한 랍비와 결혼한 다른 박학한 랍비의 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랍 비는 그녀의 견해들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10:40) 마리아의 자세와 진지함은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IVP}

63 마르다는 왜 마음이 분주했습니까?(10: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 질문 |

64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른 것은?(10:40)

6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며 그녀가 무엇으로 근심하
신다고 하십니까?(10:41)

66 예수님은 무엇이 족하다고 하십니까?(10:42)

| 답 |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 질문 |

67 마리아는 무엇을 택했다고 하십니까?(10:42)

68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10:42)

| 답 |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씀은 가장 큰 소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생의 '분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성구들을 상기시킨다(참조, 시 16:5, 27:4, 73:26, 119:57, 142:5. 추가 참조, 수 18:7).^{ESV}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신앙고백

찬양

공동기도

1.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2. 「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를 그리스도께로!

주기도

축복의 노래

공동체 소식

말씀

사사기 7:15-25

성찬

축도

성도의 교제

예배 안내

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인도	말씀읽기	성찬위원
------	------	------

07	소그룹 주일 예배	
----	-----------	--

14	김상욱	김은우	유경수	김정훈
21	박엄지	염이엘	최기순	장진영
28	정인용	전태한	김상욱	염승권

05	김원희	이준혁	김인혜	김정화
----	-----	-----	-----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오전 11:00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삶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동시에 소명 받은 예수의 제자로 각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진흙과정 | 성경을 여는 문

토기과정 | 복음서 • 서신서 • 성경연구

교회 소개

토기장이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신학교를 운영하는 초교파 교회들과 단체와 학교들입니다.

kaicam.org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사역자 | 토기장이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들 | 장창규 목사 • 정인용 목사

11354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대흥프라자 4층

potter.or.kr

헌금계좌: 농협 351-0178-6172-23 (토기장이교회)